

+ 안의섭 · KNN R&D기술팀 차장

# 2010 IT EXPO BUSAN 참관기

지역 최대의 IT 융합 전시회인 '2010 IT EXPO BUSAN'(이하 IT 엑스포)이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면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방송과 통신, IT와 방송이 융합하는 환경에서 IT 전시회는 더 이상 방송과 다른 영역이 될 수 없다. 방송도 IT의 한 영역이 되고 IT 기술이 방송 기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의 방송기술인 입장에서 IT 전시회인 IT 엑스포의 현황을 알리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 전시회 현장스케치

부산광역시,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올해 6회째로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내용면에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IT로 하나 되는 세상, 미래를 이어주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205개 업체가 636개 부스를 개설했으며, 4일 동안 9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동남권 최대의 IT 각축장이 됐다.

최근 IT 최고의 화두인 스마트폰과 3D 관련 솔루션이 전시장 입구를 장식했고, 산업로봇, 서비스로봇, 교육용로봇 등 각종 로봇전시관과 로봇경진대회가 열려 학생들과 관람객들이 대거 몰려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관심이 높은 스마트폰, e-북, 3D 게임기 등 새로 출시되었거나 출시될 예정인 IT 제품이 선보이고, 3D·VR관, 모바일관, E-스포츠관 등 테마별 체험관을 대폭 강화한 점도 관심을 끌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해 3D 디스플레이와 콘텐츠 등 다양하고 화려한 방송 관련 솔루션이 가세하여 IT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해외 소재 기업과 기관의 신청이 두드러져 올해 전시는 동남권을 넘어 전국 단위의 국제행사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전시회 자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시장을 B2B와 B2C존으로 구분하고 특화된 공동관을 대거 구성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측면과 일반 관람객의 전시 체험을 모두 배려한 부분은 인상적이었다. 관람객은 첨단 IT와 함께 즐거움, 참가 기업은 거래 상담과 실계약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보다 실속 있는 전시회로 거듭났다.



### 전시회 이모저모

올해 IT 엑스포는 소프트웨어·정보통신관, 컨버전스관, ICT관, 로봇관, 3D·VR관, 로봇경진대회관, 테마체험관 등 총 7개 테마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됐다.

#### 로봇관 및 로봇경진대회

전시회의 부대행사로 로봇경진대회가 열려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전문 인재 발굴을 위한 '제1회 부산로봇경진대회'가 부산시·부산시교육청 공동주최, 해양로봇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부산지역 기관에서 첫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로봇 관련 행사로서 대회기간 동안 로봇경연, 로봇창작, 로봇체험 등 3개 분야 6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으며, 551개 팀 8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로봇경진대회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써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 3D · VR관

관람객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3D와 로봇테마관이였다. 3D 극장, 3D 포토 코너와 애완로봇, 비디오·아케이드 게임 등으로 구성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전시회를 구성했다. 특히, 입체영상을 보며 진동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4D 맥스라이더'는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렸다.

3D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안경 방식을 탈피해서 무안경 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은 가상광고 시스템, 가상전 시 시스템 및 3D 극장용으로 제품이 출시되어 있지만, 향후 가전용 제품으로까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3D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카메라 컨트롤 리그에서부터 모션 시뮬레이션 처리장치 등 다양한 3D 콘텐츠 제작 솔루션들도 선을 보여 3D 디스플레이 분야의 강점이 이끌어낸 시너지 창출효과를 실감 할 수 있었다.

### 소프트웨어 · 정보통신관

소프트웨어 · 정보통신관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진흥과가 '스마트 소프트웨어(SMART SOFTWARE)'란 타이틀 아래 '지역SW와 공개SW 분야'의 정책과 성과를 알리는 동시에 지원과제를 통해 발굴 · 검증한 우수 제품을 시연하고 자 마련됐다.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관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실력의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일부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DMB BWS 솔루션을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 ICT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파진흥원(KOR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공동으로 마련한 ICT 관은 올해 첫 선을 보인 방송통신 분야 전용관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 전환을 홍보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D 콘텐츠의 전송이 가능한 범용의 기가비트 인터넷 환경을 선보였다. 한국전파진흥원은 크로마키 세트를 설치하여 UCC 체험행사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보안에 대한 사용자 의식강화를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 학술 분야

IT 컨버전스 포럼, RFID·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세미나, 공개 소프트웨어 대회 등 다양한 학술행사도 일제히 진행됐다.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 IT 컨버전스 포럼'은 IT 엑스포의 대표적인 학술 부대행사였다. 부산광역시와 지식경제부 주최,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주관으로 '부산을 IT융합·SW융합 클러스터 선도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 전통 및 주력산업과 첨단 IT 산업간 융·복합 동향과 관련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부산의 전통 및 주력산업의 IT 융·복합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구성한 선박전자, 조선해양SW, 자동차IT, 물류IT, 로봇 등 5개 트랙에 40편의 논문과 연구 성과가 발표되어 지역 산업과 IT 산업의 융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

RFID·USN협회와 특허청,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10 RFID·USN 지역 세미나 및 상담회'는 150여 명의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개발 및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노하우를 소개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대회에서는 선착순 사전예약을 실시할 만큼 모바일 솔루션 개발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 2010 IT EXPO BUSAN

## 전시회 참관 소감

전시회의 목적은 출품업체의 신제품 발표 및 각종 솔루션을 홍보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시장동향분석과 다양한 솔루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행사의 또 하나의 목적은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해 다수의 관련 업계 종사자와 향후 IT 업계에 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노하우와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사는 전시회 및 신제품 발표회, 바이어초청 상담회, 광역 비즈니스간의 연계,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가 어우러져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서 복합적인 IT 축제의 장이었다. 특히, 부산 최초의 전국단위 로봇경진대회인 '제1회 부산로봇경진대회'가 함께 열려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한층 더 다양해진 구경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CES, NAB, COMDEX와 같은 대규모 전시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와 같이 대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화려한 국제 IT 쇼를 기대하고 이번 전시회를 참관했다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IT 엑스포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고, 규모의 확대와 발전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PIFF)'와 같이 지역을 넘어서는 진정한 국제행사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 IT 행사의 개최를 통해 IT 벤처기업과 종사자들에게 시장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IT 행사의 체험기회를,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IT 교육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IT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 지역 방송과 IT 기술

Ubiquitous를 지향하는 IT 기술은 수도권과 지역의 구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지역 방송에게는 이러한 IT 기술의 활성화가 기회이자 위기이다. IT 전송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의 다양화와 함께 전통적인 지상파 전송 방식을 한계 속에 가두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더욱 가속화된 IP 스트리밍 등의 콘텐츠 전송 방식은 지역 방송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방송 권역마저 무의미하게 만든다. 하지만,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과거 전통적인 방송 환경에서는 중앙사에서 사용하던 검증된 시스템만 뒤늦게 도입했으므로 방송 시스템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발생했다. 그러나, 다양한 IT 방송 기술 환경은 솔루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으며, 지역 방송에게는 오히려 규모면에서 중앙사에 비해 효율적인 IT 방송 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KNN은 그런 측면에서 방송 시스템의 TAPELESS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재편집 부분을 전반적으로 TAPELESS화 하였으며, 다양한 IT 기술의 도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HD 뉴스제작 환경의 구축과 지역 최초의 주간 드라마를 편성하여 제작하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IT 방송 기술의 도입은 지역 방송에 더욱 절실한 과제이며, 위기 속의 기회라 할 수 있겠다.